

PDF EDITION

# BIBLIA

이스라엘  
따라걷기  
www.biblia.co.il

holinesscode@me.com

## 저작권 없음 공지

본 PDF 문서에 실린 글, 그림, 사진 등 BIBLIA에서는 하나님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록한 글과 찍은 사진입니다. 사전에 BIBLIA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**다만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.**

## 재배포 환영

본 PDF 문서는 BIBLIA 독자 및 www.biblia.co.il 회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배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나 SNS를 비롯한 사회통신망에서 유포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, 한가지 소박한 바램이 있다면, 다운로드 후 재배포 할때에 BIBLIA를 명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이런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.

## ❖ 대형교회 참조

본 BIBLIA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소식, 그리고 학술적인 소식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미자립 교회나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.

혹,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대형교회에서 이 자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, 알아서 BIBLIA에 후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 **후원에 대해서는 www.biblia.co.il 에서 About BIBLIA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
| 이의상 holinesscode@me.com



## Article at a Glance

“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,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.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” (창세기 19:24-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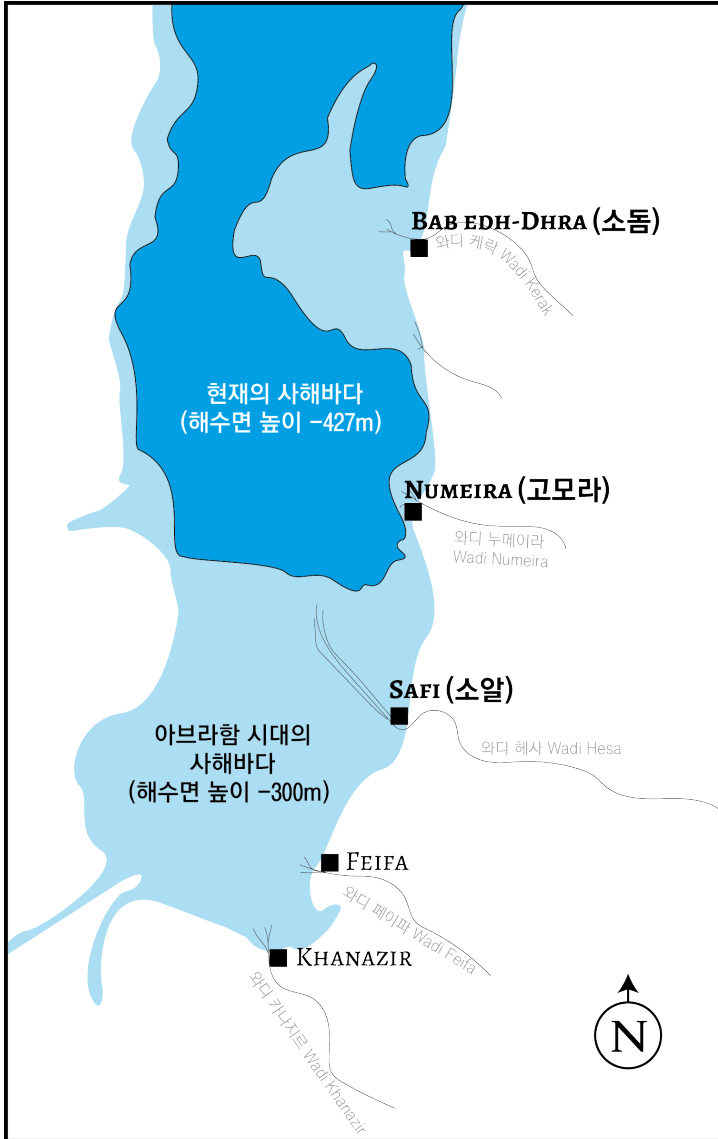
**사해** 바다 남쪽에는 남북으로의 길이가 8km, 동서의 길이가 4km, 그리고 땅으로부터의 높이는 약 200m가 되는 독특한 산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산은 분명히 산인데,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. 일단 주변의 산들이나 지형에 비해서 그 모양도 좀 다르고, 더군다나 ‘산’이라 불리면서도 흙이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산의 이름은 **소돔산**인데, 이 산의 80%는 소금입니다. **소돔산**이라고 불리지만, **소금산**이라 불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옛 사람들은 소금으로 이루어진 이

산 주변 어딘가에 이제는 사라져버린 **소돔**과 **고모라**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두고온 가족과 재산에 미련이 남았던지, 도망가는 길에 뒤를 돌아본 **롯**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니, 이 소금산이 아마도 성경의 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이 소금산을 **소돔산**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.

**소돔**과 **고모라**의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불로 망한 그 도시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합니다. **소돔**과 **고모라**의 이야기는 오늘 날에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.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이 두 도시의 이야기에 대해서 고대 서아시아 지

**소돔산**. 유대 광야를 이루는 산지의 모습과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. 이 소돔산의 주 성분은 소금이며, 거대한 소금 덩어리 위에 광야의 먼지가 뒤덮혀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.





사해 바다와 그 주변. 사해바다의 요르단 쪽에는 다섯 개의 도시가 발굴되었다. 창세기 14장에서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담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소알와 벨라가 싯딤 골짜기에 진을 친 이야기가 나오는데, 이 다섯 왕이 다스리던 도시들이 아마도 지도에 표시된 다섯 도시일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정한다.

방의 사람들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기원전 2500-2250년 사이에 시리아의 에블라 지역에서 기록된 약 1800개의 토판들의 이야기 속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이름이 발견될 정도이니 말입니다.

그러나,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

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“바로 이곳이다.”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.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소돔산 뒤편의 언덕가가 성경의 소돔이 있었던 곳이고, 마사다 남쪽 언덕가가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부터 소

돔과 고모라가 사해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고대의 아틀란티스를 찾는 듯한 전설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“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.” 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“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.” 는 것입니다.

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지역은 있습니다. 사해 바다의 요르단 쪽에 밥 엷-드라(Bab edh-Dhra)라는 곳이 있는데 (1965년에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), 기원전 3,100년부터 대략 기원전 2,250년까지 있었던 이 도시가 소돔으로 생각되는 매우 유력한 곳입니다.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아래에 누메이라(Numeira)라고 불리는 지역(1975년부터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)은 고모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. 밥 엷-드라는 가로 세로 약 200m의 거대한 도시(약 40,000㎡)로 7미터 두께의 진흙으로 쌓은 성벽이 발견되었고, 도시의 면적으로 보아서, 대략 2,300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. 그곳에서 발견된 무덤만도 20,000개가 넘고, 그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이 500,000명,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매장된 토기만도 3백만개 이상이 출토되었으니,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규모가 컸으며, 대단히 풍요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당연히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 싶어했을 겁니다. 풍요로움을 따지자면, 고모라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. 누메이라는 소돔보다도 그 면적이 두 배정도 더 컸습니다(약 80,000㎡). 사해 바다의 그 뜨거운 온도를 버티고 대규모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.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

서 말이지요.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니, 이곳에서 생산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매우 독했을 겁니다.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**누메이라**와 그 주변에 있는 샘들 때문이었습니다. 도시의 면적이 크다는 것은, 곧 사람들도 **소돔**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말입니다. 이 두 도시는 **사해** 바다 주변을 대표하는 풍요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. 상상해 보세요. 황량한 광야, 마실 수도 없는 물인 **사해** 바닷가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푸른 대추야자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고, 신선한 샘물이 팔팔 흐르며, 그 주변으로는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 도시를 말입니다. 얼마나 아름답다고 풍성했는지, 창 13:10에서는 **롯**의 눈에는 그 땅이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, **이집트** 같기도 했답니다.

그러나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언정, 하나님의 눈과 기준은 달랐습니다. 드러나는 풍요의 뒤에는 그 풍요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은밀한 타락이 있었습니다. 풍요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,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,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. 처음에는 드러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은밀했던 그 타락과 죄가, 이제는 드러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으리 만큼 하나님을 향한 양심도 무뎠습니다.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, 정작 **소돔**과 **고모라**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, 그 참혹한 결말 때문이었습니다. 지금도 **밤 옛-드라**와 **누메이라** 지역에 가면 전문적인 고고학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발견



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

할 수 있는 둥근 모양의 불에 탄 숯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, 한 때 약 1,000년 가까이 번창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폐허가 되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.

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“소유”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. 눈에 보이고,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일차적인 감각에만 사로잡힌 이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. 풍요의 쾌락을 이미 맛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. 잃어버린다쳐도 다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지요. 낚시바늘의 미끼에 속아서 뉘씩 물었다가 주둥이가 찢어지는 경험을 한 물고기가 다시 그 낚시바늘을 물 듯이 말입니다.

**롯**의 아내가 그랬습니다. 살고 싶었다면,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. 100미터 달리기 선수처럼 말입니다.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습니다. 앞에 어떤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는지 살필 새도 없이 넘

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. 그런데, 두고 온 것들,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이 났나봅니다. 멸망을 당할 **소돔**과 **고모라**를 뛰쳐나올 진대, “이것 하나는 건져야 하는데…” 하는 그것 때문에 **롯**의 아내를 뒤를 돌아 보았고,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. 차를 타고 가다 이 기둥을 지날 때이면, **롯**의 아내가 저를 보고서는 “너는 그리 살지 말아라.”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. 